



중소 ESG 향상, 지배구조는 더더 환경·사회 등 성과 개선에도 ‘시간’

대한상의
중소·중견기업 ESG 진단 조사 ESG평가, 작년 4.6~4.8점 ‘양호’ 지배구조, 윤리경영 등 소폭 올라 “투명경영 포함 지배구조 개선 중요”

에서 6.48로, ‘온실가스’는 0.7에서 4.15로 크게 올랐다. ‘폐기물’은 2.29에서 3.52로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후변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위해성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자체별 기업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감축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회(S)는 ‘근로환경’이 1.96에서 5.7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하지만 ‘정보보호’는 2022년 당시 4.5에서 지난해엔 오히려 3.12까지 하락했다. 1.56이던 ‘사회공헌’은 3.35를 기록했다.

문제는 지배구조(G)다. ‘윤리경영’은 2년새 3.65에서 3.93으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정보공시(1.67→3.38)와 감사(2.43→4.14)도 다소 올랐지만 모든 요소가 여전히 3에서 4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상의는 G에 대해선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가 논의됨에 따라 기존 회계감사위주에서 경영개선 및 위험관리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경영 전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가등급은 ▲취약(0~2.99) ▲양호(3~6.99) ▲우수(7~10) 3개 구간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중기중앙회가 앞서 내놓은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지배구조와 관련해 ▲경영방침 및 사업계획서에 윤리경영 정책(목표) 반영 ▲비윤리적 이슈관리 기준 마련 및 내부 이해관계자 공유를 통한 개선사항 반영 ▲기업의 비재무 성과 공개 ▲지속가능 실행을 위한 인증 보유 등 실행 여부가 관건이다.

중소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ESG 경영에서 중소기업들이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실천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고, 가족경영을 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도 임직원에 대한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등 윤리경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경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경영에서 ‘G(지배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E) 분야를 중심으로 ESG 성적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더딘 모습이다. 지배구조에 속하는 윤리경영, 비재무성과 공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ESG 진단대상 중소·중견기업 2131개사의 ESG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 ESG 경영수준이 2022년 당시 ‘취약’인 2.0~2.2점에서 지난해엔 4.6~4.8점의 ‘양호’ 수준으로 향상됐다.

2년새 ESG 평가 점수가 올라간 것은 환경(E) 분야 영향이 가장 컸다. E에선 ‘대기오염물질’ 관련 점수가 1.13

서울모빌리티쇼, 첫 주말 구름 인파로 ‘복적’

친환경차·다양한 모빌리티 경험 중국 BYD, 첫 참여로 주목받아 30주년 맞이 60만명 관람객 예상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서울모빌리티쇼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이 HD현대 부스에서 굴착기를 체험하고 있다.

“평소 친환경차에 관심이 많았는데 수소와 전기차 등을 직접 볼 수 있어 가족과 방문했어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서울모빌리티쇼’는 전시 첫 날부터 수많은 관람객이 찾으며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올해 행사는 첫 주말을 맞은 7일까지(4일간) 24만5023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지난 2023 서울모빌리티쇼(20만여명)와 비교해도 20% 가량 상승한 수치다.

기존의 모터쇼를 넘어 모빌리티쇼로 범위를 넓혀 자동차는 물론 불도저와 굴착기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전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람객부터 자동차 마니아 동호회, 중장년층까지 현장을 찾았다. 현대차·기아·제네시스 등의 국내 업체와 메르세데스-벤츠·BMW·포르쉐 등 수입차 업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올

해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가 처음으로 참여해 전기차 세단 모델인 ‘셀’ 등 여러 모델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자녀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강민씨씨는 “중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 직접 보니 예상보다 디자인과 완성도가 높아서 놀랐다”며 “다양한 친환경차와 체험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부담없이 모빌리티쇼를 즐겼다”고 말했다.

완성차 뿐만 아니라 HD현대가 마련

한 건설기계 관련 체험공간도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모형 굴착기를 관람객이 플라스틱 공을 파내는 놀이를 체험할 수 있었고, 기아가 마련한 부스에도 완구회사 플레이모빌과 협업한 전시품을 공개해 어린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또 모빌리티쇼에 주류업체가 부스를 마련해 이색 체험 공간도 눈길을 끈다. 오비맥주는 자사 낱알코올 음료 브랜드 ‘카스 0.0’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낱알코올 음료 브랜드가 모빌리티 쇼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카스 0.0은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일상에 낱알코올 음료가 어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카스 0.0 체험 부스는 드라이브스루 콘셉트로 구성했다. 방문객은 동선을 따라 브랜드를 체험하고, 카스 0.0을 시음할 수 있다.

한편 올해 30주년을 맞은 ‘서울모빌리티쇼’는 13일까지 열리며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중국 비야디(BYD), 영국 로터스 등 12개 완성차 브랜드가 참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기 “협력사와 제품 경쟁력 확대”

동반위와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

삼성전기가 협력 부품사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삼성전기와 9일 경기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삼성전기와 협력 중소기업 간 상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DAY’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삼성전기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부품 산업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삼성전기는 우선 협력사와 하도급, 우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주기·제때주기·상생결제 주기)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임치제도 활용 및 기술보호 지원 ▲지속가능경영 지원 ▲판로개척 지원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 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동반위 이달근 위원장은 “글로벌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기의 저력은 전략적 파트너인 협력 중소기업들의 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협력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에어로, 역대 최대 ‘K9 유저클럽’ 참가

K9 운용 노하우 등 공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K9 자주포 교류의 장 ‘K9 유저클럽’에 참여했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행사는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K9의 운용 노하우를 사용국들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이번 행사에서 단순 무기체계의 판매를 넘어 중장기적인 후속 군수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K9 유저클럽은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루마니아, 대한민국 등 7개 운용국과 미국, 스웨덴이 참가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9개국 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국들은 행사 기간 동안 K9 자주포의 운용·정비 현황 및 차세대 자주포 개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K9 탄약 호환성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 국가들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000억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

약을 체결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HS W의 크라프 자주포 생산시설을 둘러 보고 K9을 운용하는 야전부대로 둘러 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운용국들의 군수지원 요청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고객의 소리’ 데스크를 이번 행사 기간에 운영했다.

조상환 MRO 사업부장은 “K9 사용국 증가에 따라 후속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품질 개선과 군수지원 효과 극대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의 IoT(사물인터넷) 기반 MRO 플랫폼인 ‘톰스(TO MMS)’를 K9 유지보수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톰스는 무기체계 상태를 실시간 수집·관제해 유지보수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 K9 자주포의 최대 도입국인 폴란드에서 개최됐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에 K9 자주포 총 672문을 도입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364문의 실행계약을 완료했다.

/이승호 기자 lsy2665@

LG, AMD 라이젠 탑재 ‘그램 15’ 선보

AI 활용 많은 직장인·대학생 타깃

LG전자가 AMD의 최신 AI 프로세서 탑재한 15.6인치 ‘LG 그램’ 신제품을 오는 18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그램 시리즈 최초로 ‘AMD 라이젠 AI 프로세서’를 적용한 제품으로, 가벼운 무게에 고성능 인공지능(AI) 기능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라이젠 AI300’ 시리즈를 탑재한 그램 AMD 모델은 최대 50 TOPS 성능의 신경망 처리장치(NPU)를 갖췄다. AI 기반 문서 작성, 요약, 번역 등 복잡한 작업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AI 기능을 자주 쓰는 직장인이나 대학생에게 적합하다.



환경·사회 성과는 개선, 한계는 여전.

이번 신제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능인 ‘코파일럿 플러스’를 지원하고, 챗GPT 최신 버전인 ‘GPT-4o’를 기반으로 한 ‘그램 챗 클라우드’도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일정, 이메일, 문서 등을 AI와 대화하듯 손쉽게 확인하고 정리해주는 AI 비서 역할을 한다.

/이해민 기자 hyem@